【Fiction】 - 煥 >

[정엘 장편] (정엘×새연)2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09. 12:21 조회 124

댓글 4 URL 복사

긴말 안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
"내 이름은 연화야"
"만나서 반가워,연화. 근데 아까 누가 공주님이라고.."
"아..난 고화국 왕이였던 일왕의 딸이야. 지금은 사정이 있어 궁밖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
"그렇구나,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난,학이다.공주님의 호위무사지"
"나는 윤."
"나는 키자다.사룡중 백룡이지"

응?용?혹시 드래곤?..일리가 없는데?

"사..룡?그게 뭐야?"
"사룡이란 고화국을 세운 비룡왕과 함께 이나라의 혼란을 수습한 사람들이야.비룡왕이 죽은 후엔 각각 고화국내에서 그 대를 잇고 있어"
"우와.그럼 나머지 애들은?"
"신아..청룡"
"난 재하. 하늘을 나는 녹색의 용이지"
"제노는 황룡~"
"우리는 고화국을 돌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다들 앞으로 잘부탁해~"

내가 손을 내밀자 연화가 그 손을 맞잡아 왔다

"그런데 연화 지금 목적지는 어디야?"
"우리는 지금 불의 부족령으로 가고 있어. 그곳은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거든"

가뭄이라니.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나?아크아돈엔 그런데가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 해야 하니까 다들 어서 자둬"
"네~"《모두

대답은 했지만 딱히 우리는 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는척 하면서 정령어로 수다를 떨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일어나. 밥먹어야지"《윤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ㄴ 게시물 리턴
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ㄴ 【2015 대항전】
ㄴ 【2016 활동이벤트】
ㄴ 【2017 콘테스트】
ㄴ 마니또
ㄴ 순간포착!
ㄴ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Beta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망했다!!우린 밥을 못먹는데? 그렇다고 안먹으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테고...
다른애들도 난처한 표정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 트로웰이 땅에다 버릴수도 없는데..
결국 우리는 불로 태워 버릴수 있는 이프리트을 제외하고 밥을 먹은후 곧바로 내가 치유술을 써주기로 했다

"하하 저희는 배가 안고파서요, 조금만 먹을께요"
"응? 가녀린 여자애가 조금만 먹으면 쓰러지지"《재하
"푸흡"《트로웰

가녀린...여..자?
지금 나보고 여어자아? 난 어면한 남성체!라고 남!성!체! 너희처럼 남자!라고!she가 아니라 boy!"
난 뒤에서 배를 움켜잡고 웃는 트로웰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곤 왜 그러는지 의아해하는 일행들에게 다가가 확실하게 못밖았다

"하..저기..저는 남자에요"
"!!!"《연화 일행

다들 충격받은 모양이다. 하지만 익숙한 반응이라 그런지 그냥저냥 넘어가게 됬다

"어..남자..라고?
"네. 확실한 남!자!입니다."
"어..그..그래 미안하다"

그들은 말까지 더듬었고 당연히 트로웰은 더욱 배를 움켜잡고 바닥을 구르며 웃었다
한 2시간후면 괜찮아 지겠지
아무튼 우린 간신히 웃음을 멈춘채 밥을 먹었다
당연히 우린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내색하지 않기 위해 얼굴에 힘을 꽉 주고 있었다
다들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딱히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나마 음식양이 적어서 살았어
난 식사를 마치고 표정이 파래져있는 녀석들에게 가서 몰래 치유술을 시전했다.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런 엘을 보던 누군가가 있었으니..눈이 약간 커지며 그들을 주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였다

"자~그럼 다시 출발하자~"《연화

불의 부족령이라..왠지 기대된다~

<불의 부족령>

"뭐..야..여긴"《엘
"땅도 다 메말랐어"《트로웰
"공기도 굉장히 탁하군요"《미네
"불의 기운만 너무 강해.이러다 불이 쉽게 번지겠어"《이프리트

불의 부족령의 상태는 우리 예상을 그냥 뛰어 넘었다
사람들은 메말랐고 역병이 돌았으며 오로지 노인들과 어린애들 뿐이였고 작물은 자라지 않아 가난했다

"여긴 가담 마을이야. 그나마 우리가 작물을 찾아 오고 나선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래도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라 피해가 상당한 지역이야"《윤

이게 나아진 거라니 대체 예전엔 얼마나 심각했던거야?

"아무튼 난 밥을 할테니깐 연화랑 뇌수(학)는 설거지를 해주고 키쟈랑 재하는 빨래,신아랑 제노는 밥하는걸 도와줄래?그리고 너희 네명은 그담마을의 부서진 집들을 좀 고쳐주고"
"알았어"《정령왕들

우리로썬 할얘기가 있었기에 따로 떨어진게 잘된 일이였다

우리는 재빠르게 집들을 수리하고 보이지 않도록 자연체로 돌아가 의논 하기 시작했다

-있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지금 이마을-《엘
-굉장히 심각해. 이곳에는 정령들이 없어서 그런가?토지도 메말랐고 작물도 자라지 않아-《트로웰
-공기도 마찬가지로 오염되고 탁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군요-《미네
-그렇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고쳐버리기엔 너무 이상하고 말이야《이프리트

난 잠시 생각해보다가 거대한 비를 내리기로 했다. 내가 비를 내리기 전에 트로웰이 빨리 자라는 나무의 씨앗을 넓게 심으면 미네가 바람으로 퍼뜨리고 마지막에 내가 비료성분을 담은 비를 많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빠르게 숲이 생길것이고 그럼 토양도 비옥해 질테니 농사도 잘될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보는 눈이 있으니 저녁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의논을 끝마치고 다시 육체를 입은 우리는 일행이 있는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못보던 사람이 있네?

"연화 이사람은 누구야?
"아,엘. 이사람은 불의 부족장의 동생인 태준이야"
"불의 부족장의?그런데 왜 여기에?"
"태준은 가난한 마을을 돌면서 그 마을을 청소하고 도와주고 있어"

호오~귀족같은데 그런행동을?괜찮은 사람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이..이정도는 별거 아니다."

뭐야?왜 말을 더듬어?
뒤에서 또 킥킥거리고 있는 트로웰은 무시한체 난 태준의 말을 계속 들었다

"아무튼 공주님,요새 북계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형님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는게 아닌가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맞는거 같아요"《태준

전쟁?아니 우리 온지 얼마나 됬다고 벌써부터 전쟁이야?

"게다가 이번엔 북계에서 이상한 무기(?)까지 준비한거 같아요"《태준
"무기?"《연화
"무기라고 하기엔 이상한 괴생명체지만 굉장히 강한 괴물 입니다."《태준

괴물이라고?설마...마물은 아니겠지?

"확실히 이상하네요 공주님.이건 너무 위험하니 공주님은 피해 계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당연히 가실거죠?"《학
"후훗.물론이지.이틀후에 바로 출발하자"《연화

결국 이틀후에 출발하기로 했고 우리는 우리에게 온 식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밥먹는걸 피할수 있었다

보름달이 비추고 깜깜한 밤이 되자 모두가 잠에 빠졌고 우리는 일어나 낮에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을 줄은.

넓은 평야를 찾는 그들은 바로 계획을 실행했다. 트로웰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씨앗을 심으면 미네가 바람으로 멀리 퍼뜨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트로웰에게 받은 비료가 잔뜩 담긴 약을 물에 풀어 비를 내렸다.

씨앗이 원래 빨리 자라는거기도 하고 비에도 비료가 섞여 있으니 나무들은 금방 자라 어느새 우리의 키만큼 따라 잡았다. 하루가 지나자 그곳엔 울창한 숲이 생겼고 작은 동물들과 물고기들도 살기 시작했다. 단 하루만이라 굉장히 이상하지만 건조한 땅이다 보니 일어나는 이상현상쯤으로 생각할것이다.

그들은 이뤄낸 성과를 보며 서로 웃었다.하지만 그러느라 다가오는 기척들을 눈치 채지 못했다.

"너희는..대체 정체가 뭐야?"
"!!!연..화?"

===
공백제외:2166
이렇게 끝났네요~원랜 수요일에 오려고 했는데 확김에 다시 적었습니다~

다음화엔 비중있는 누군가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망작 느낌이 나긴 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헬마스터
와아! 2화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